

광주에 유가족 위로·치유 공간 고품격 ‘호텔형 장례식장’ 조성

‘베스트장례문화원’ 광산구서 문 열어 접객실 12곳·500대 주차 시설 차별화 ‘사람 중심 패러다임 변화’ 이용객 만족

광주 지역에 장례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호텔형 장례식장’이 새롭게 문을 열어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베스트장례문화원은 최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베스트장례문화원은 2만2천810㎡(6천90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분향 및 접객실은 총 12곳으로 각 공간은 독립적으로 구성돼 유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조문객 동선 또한 체계적으로 분리해 이동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약 50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시설을 확보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

시설 구성에서도 기존 장례식장과는 확연한 차별화를 꾀했다.

내부는 호텔 라운지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적용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넓고 여유로운 접객 공간과 편안한 휴게시설은 장시간 머무르는 유가족과 방문객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례 절차 전반이 보다 차분하고 품격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카페형 휴식공간인 ‘보스프레소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 공간은 단순한 대기장소를 넘어 방문객들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베스트장례문화원이 최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호텔을 연상시키는 베스트장례문화원의 내·외부 모습. (베스트장례문화원 제공)

이 잠시 머물며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장례식장이 지닌 엄숙하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보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최근 변화하는 장례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장례문화가 단순한 의례 중심에서 벗어나 유가족과 방문객의 경험과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도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베스트장례문화원은 공간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이러한 흐름을 적극 반영하며 지역 장례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해당 건물은 예식장과 명품관 등으로 활용됐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장기간 침체를

겪어온 공간이다. 한때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을 기대받았지만, 연이은 운영 부진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며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고급화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형 장례문화원’으로 재탄생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됐다.

유휴 공간이 지역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베스트장례문화원 관계자는 “장례를 단순한 절차가 아닌 유가족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과정으로 보고 공간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지역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장례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태호기자

다양한 변수 속 4월 중순 반등 기대

주간 증시 전망



김경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V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3월25일~31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7.6%, 코스닥은 4.3%가량 하락했다. 해당 기간 개인이 양대 지수를 9조원 순매수했고 외국인 14조원을 순매도, 기관이 3조원가량 순매수했는데 기관의 순매수도 대부분이 개인의 ETF 매수 자금으로 개인이 외국인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물량을 모두 받아 간 한 주로 볼 수 있다.

수급상으로는 매우 불안한 측면이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니 환율도 지속 상승해 이제는 1천555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4월 둘째 주부터 발표될 국내 대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상당히 기대되는 만큼 지수 5,000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3월 국내 증시는 미국-이란 전쟁과 터보퀀트 이슈로 변동성이 컸다(코스피, 코스닥 각각 13%, -4%).

하지만 그로 인해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졌는데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8배 미만으로 내려왔고 PBR은 1.4배로 하락했다.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실적과 유동성,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는 환경이다.

코스피 1분기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27조원으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터보퀀트 이슈, 마이크로 이익을 피크아웃 이슈가 있지만 국내 반도체 펀더멘털은 견고하다. 2026년 영업이익 기대치는 지속 상승되고 있고 수출 데이터도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더불어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ETF를 통한 간접투자가 수급의 중심인데, 국내 주식형 ET

F의 자금 유입은 올해 들어 30조원으로 지난해 전체 유입 규모(16조 원)를 이미 넘어섰다. 개인들의 ETF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여력은 높다는 판단이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918조원인데 원리금 보장형의 비중이 72%이다. 미국은 반대로 원리금 비보장형인 주식 비중이 71%로 점차 국내 연금 자금도 주식형으로 전환되며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이다.

사실 전쟁으로 인한 환율과 인플레이션 문제가 뉴스로 인연이 도배되고 있지만 ‘미국 증시가 언제쯤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까’를 유동성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미국 유동성 공급의 최대인 지급준비금, TGA(미재무부 통장), RRP(연준의 부채) 모두 작년 말부터 추가 유동성 공급이 힘든 상태였다. 민간 유동성 축소는 위험자산의 변동성을 키우고 달러 강세·신용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되는데, 작년 말 미 증시는 최상단이었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전쟁이 발발하며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일단 4월 중순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미국인들이 전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방소득세 납부 마감일이 4월 15일이고 이때 1조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TGA로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한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약세만 가득한 시장 속에서 유동성이라는 실타래는 한 가닥 풀리기 때문에 만약 이란 종전도 지상전으로까지 가지 않고 4월 중순으로 예상한다면 4월 중순부터는 미국과 함께 국내 시장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 48시간 최후 통첩 이후 5일간의 유예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 냈던 트럼프는 지난 주 목요일 10일간의 추가 공격 유예 발표 후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모습이다. 최근 유가의 급등에도 인플레이션이 수모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에 미국채 금리는 상승하지 못하며 시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10일 유예가 종료되는 4월 8일은 최소한의 협상 타 마련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이고 이 정도 진전만 확인된다면 시장의 안도감은 적지 않을 것이다.

농어촌공, ‘클린 웨이브’ 실천 윤리경영 성과 ‘눈길’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 투명 경영 입증

한국농어촌공사는 ‘클린 웨이브 123’을 중점으로 윤리경영을 추진한 결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향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시장 주도로 임직원과 함께 윤리경영 혁신에 나섰다. 이를 위해 조직문화 브랜드인 ‘케이알씨 클린 웨이브 123(KRC Clean-Wave 123)’을 선포했다. ‘개인’의 변화를 통해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개인의 변화’를 위해 임직원 윤리교육 내재화에 힘썼다. 갑질·부패·성비위 등 3대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집중 홍보와 실제 사례를 활용한 모의 신고 훈련을 진행해 윤리교육을 높였다.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윤리경영 체계를 정비했다.

공사는 재정경제부의 ‘윤리경영 표준모델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체계적인 자기 점검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핵심 위험 선정에 최고경영진 참여’, ‘윤리강령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 26개 지표를 추가로 추진해 전

체 300개 점검 내역 중 99.3%(298개)를 이행했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의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취득해 준법 경영 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졌다.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경영대상에서 조직운영관리상과 평가자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등 대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올해도 윤리경영 시스템 고도화를 이어나간다. /임태호기자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인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하늘아래 단 하나의 터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법당형 봉안당 시스템 해원정사 VIP추모원은

- 1 편리한 접근성
광주광역시 중심 동구에 위치하며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2 명품안치단
극락전 VIP안치단은 고인이 유품을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더 넓고 화려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 3 극락전VIP추모관
내부에서 골고루 자연재광이 되도록 설계 하였고, 한은-한시스템으로 고인을 쾌적하게 모십니다.
- 4 해원정사 추모원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
- 매년 가을에 추모산사용익회 개최
- 해원정사 추모원에 모시는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스님께서 매일 기도해 드립니다.
- 매일 음력18일 지장재일과 백중, 구정, 추석 등 매년 15회 합동제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 추모관은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보안은 5중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프리미엄 봉안당 지급 준비가 가장 현명
10년후면 더 비싸집니다. 봉안당은 부동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미리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세요!

VIP 가격표 (관리비 별도)

개인 단	400백만원 ~
부부 단	800백만원 ~ 2,400백만원

광주광역시 동구 분산길 100
www.haewonjungsas.com 대표전화 | 062-234-4576